

IV. 韓國의 主要 기타 自然洞窟

- (1) 생탄피난굴 (2) 들곡굴 (3) 풍춘굴 (4) 斗音窟 (5) 寶發窟 (6) 於衣谷窟
(7) 뒤뜰굴 (8) 궁골굴 (9) 平川洞窟 (10) 굴골굴 (11) 龍泉窟 (12) 회곡동굴
(13) 게우세굴 (14) 어메이굴 (15) 괴내기굴 (16) 德泉窟 (17) 한들 구녕굴
(18) 金陵발굴 (19) 조롱굴 (20) 계변굴 (21) 北窟 (22) 가랭이굴 (23) 石窟
(24) 범바위窟 (25) 仙窟 (26) 三和寺虎窟 (27) 하동굴골굴 (28) 稷岳洞窟 (29) 沙
谷窟 (30) 次口里범굴 (31) 漣華上窟 (32) 閭三垂直窟 (33) 폭나무밑굴 (34) 黃土
品窟 (35) 행매굴 (36) 작은 초깃굴 (37) 박쥐굴 (38) 水谷洞窟 (39) 將師窟
(40) 지남철동굴 (41) 千壽洞窟 (42) 鶴田窟 (43) 진피리굴 (44) 나팔굴 (45) 小龍
窟 (46) 公耳窟 (47) 鳴馬窟 (48) 바람굴 (49) 次口里범굴 (50) 禁夢庵窟 (51) 갯
생이굴 (52) 중산세골굴 (53) 말굴 (54) 천동틀굴 (55) 미륵리 수직굴 (56) 下槐
洞窟 (57) 水穴 (58) 龍窟 (59) 龍泉窟 (60) 중산골앞굴 (61) 길옆굴 (62) 鳥飛窟
(63) 전의굴 (64) 얼음굴 (65) 龍水谷窟 (66) 절골굴 (67) 늘굴굴 (68) 경검산굴
(69) 盤泉窟 (70) 石項垂直窟 (71) 漣上세구굴 (72) 角洞窟 (73) 박쥐굴 (74) 중터
거리굴 (75) 배거리굴 (76) 괴골굴 (77) 富谷숫굴 (78) 돛저목나무굴 (79) 여우굴
(80) 머시떨굴 (81) 태나무골굴

IV. 韓國의 主要 기타 自然洞窟

(1) 생탄 피난굴

旌善郡 旌善邑 鳳陽 6 리에 소재한 石灰岩洞窟로서 높이 4 m, 폭이 3.5 m, 全長이 100 m이고 세대 부락에서 1 km 떨어진 해발 550 m 지점에 자리잡고 있다.

입구에서 커다란 廣場이 나타났다. 좀 더 들어가면 다른 廣場이 나타나는데 廣場 끝 부분에 못이 있는데 바닥은 모래로 되어있다. 國有地에 자리하고 있으며 동굴내부의 도처에 험한 절벽과 急傾斜가 많아 극히 위험한 지역으로 6.25사변 당시의 인근 주민의 피난처가 되었으며 洞窟이라고는 하나 조건은 구비하지 못하고 있으며 연중 지하수가 흐른다.

(2) 돌꼭굴

旌善郡 東面 石谷 2 리에 자리한 石灰岩 洞窟로서 김억욱씨 私有地로 자리하고 있다. 하늘목 부락에서 1.5 km 떨어진 해발 700 m 지점에 자리잡고 있으며 入口에서 10 m 지점부터 2 갈래로 갈라진 쌍굴이다.

洞窟微地形인 石筍이 있고 원형 그대로 보존이 잘 되어 있다.

암벽으로 된 산중턱에 위치하여 접근하기가 어렵고 입구로부터 50° 각으로 아래로 내려가게 되어 있었으며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거리는 약 100 m 정도이고 그 이상은 미상이다.

(3) 灰洞窟

旌善郡 東面 虎村里에 소재한 洞窟로서 높이 2 m, 폭이 0.6 m, 전장 200 m의 도로변에 위치한 窟로서 입구를 봉쇄해왔다.

國有地에 있으며 地下水가 흐르고 있고 入口가 매우 협소하여 출입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入口에서 바로 80° 傾斜로 垂直이다.

東面 虎村마을에서 0.8 km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는 동굴이다.

(4) 斗音窟

丹陽郡 大崗面 斗音里 山 62 번지에 소재한 石灰岩洞窟로서 높이 25 m, 폭 20 m, 전장 500 m이다.

김영창씨 所在地에 있으며 입구에서 20 m 지점에 폭 20 m 정도의 廣場이 있고, 점차 줄어들어 이어지는 水平洞窟로서 중앙선 리굴의 옆부분 大崗面 斗音里에서 약 50 m 떨어진 야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다.

地下水는 없으며 동굴 미지형도 발달되지 않았다.

다만 박쥐와 특이하게 8 m 지점에 곰팡이가 서식하고 있고, 입구 및 동굴에 사람들이 출입하여 불을 피워 많이 거슬린 상태로 방치되었는데 이는 6.25 당시 주민의 피난처로 이용되었던 관계인 것 같으며 동굴의 입구가 2 개로 되어 있으며 사람의 연결 탐사는 불가

능하며 아래 입구에서 불을 피웠을 경우에 상부입구로 연기가 나온다고 한다.

(5) 寶發窟

丹陽郡 住谷面 寶發里 山76번지에 위치한 石灰洞窟로서 높이가 1.5 m이고, 폭이 2 m, 전장이 300 m이다. 國有地에 있으며 다른 石灰洞窟처럼 복잡하지 않고 매우 단순하다. 住谷面 寶發國民學校에서 500 m 떨어진 산중턱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굴에는 박쥐와 도롱뇽이 서식하고 있다.

보존상태는 地下水로 하절기는 출입이 불가하며 방치된 상태이다. 대개의 동굴처럼 하계에는 洞窟流가 흐르고 건계에는 없으며 外部의 지하수가 동굴내부로 흘러 들어가고 있으며 6.25사변 당시에 寶發 주민이 피난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6) 於衣谷窟

丹陽郡 佳谷面 於衣谷里 山19-1번지에 위치한 石灰岩洞窟로서 높이 20 m, 폭이 15 m, 전장이 300 m이다.

入口에서 조금 들어가면 廣場이 나오고, 또 다시 30 m 지점에 폭 15 m에 이르렀다 점차 줄어든다.

주변 於衣谷里 하의골에서 700 m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동굴에는

地下水가 흐르고 박쥐가 서식한다.

입구에 많은 人波가 出入하였으며 鍾乳石, 石筍, 石柱의 발달은 없으며 부분적 내부 훼손이 많은 동굴로서 방치된 상태이다.

石灰岩層과 화강암층의 연결 부분으로 석회암만 용해된 상태이고 주로 석회암낙석으로 구멍이 여러개소 뚫린 굴로 위험요소가 많은 동굴이다.

(7) 뒤뜰굴

丹陽郡 丹陽邑 북하리 山 4-1번지에 소재한 石灰洞窟로서 높이 10 m, 폭이 15 m, 전장 100 m의 池炳九씨 소유의 私有地에 있다. 丹陽驛에서 약 5 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중 地下水가 흐르고 박쥐가 서식하고 있다.

입구에서 조금 들어가면 두갈래로 갈라지는 쌍굴이며 단양군 철도 관사가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동굴에 흐르고 있는 地下水는 주민의 식수 공급원이 되고 있다. 동굴내부에는 出入한 흔적이 없으나 입구에는 인위적 구조물이 많다. 江原道 寧越郡과 통했다는 전설이 있으며 洪水時에는 동굴류 속에서 감자껍질이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다. 동굴 내부에는 연중 地下水가 흐르는데 주변에 가까운 南漢江의 支流가 흐르고 있는 관계로 雨期에 洞窟流가 형성되기도 하고 뒷부분의 배후산지가 地下水의 공급원이 되고 있는 것 같다.

(8) 궁골굴

慶北 聞慶郡 觀音里 山 661-1 에 소재하는 石灰洞窟로서 높이 1.2 m이고, 폭이 2 m이며 전장이 140.9 m이다.

李鍊棋씨의 所有地에 있으며 觀音里에서 2.4 km 떨어진 포함산 중턱의 750 m 지점에 자리하고 있다.

入口에서 조금 들어서면 조그마한 廣場이 나타나고 있으며 本窟과 支窟로 갈라지는 권총 모양의 형태를 한 동굴로서 洞窟微地形으로는 鍾乳石이 있으며 약 50 수 정도의 박쥐가 서식하고 있다.

朝鮮時代 末에 의병들의 은신처가 되기도 하였다는 이 동굴은 다른 석회동굴에 비해 비교적 단순하다.

(9) 平川洞窟

奉化郡 小川面 大峴1里 山 52번지에 소재한 石灰洞窟로서 높이가 3.5 m, 폭이 3 m, 전장이 500 m에 달한다.

奉化郡廳의 所有地에 자리잡고 있는 이 동굴은 平川에서 大峴간의 도로상에서 200 m 떨어진 연화산 중턱의 해발 700 m 지점에 자리잡고 있는데 동굴 내부에는 地下水가 흐르고 박쥐가 서식하고 있다.

入口에서 100 m 지점까지 점차 넓어져 폭이 6 m에 달했다가 점차 좁아져서 다시 8 m에 달했다가 다시 쌍갈래로 나뉘어지는 낙타봉 모양의 동굴로서 동굴내부는 原形保存이 되어 있으나 入口 주변

은 심한 훼손이 되었으며 주변이 매우 협소한 지역이라 동굴까지는 통로가 개설되어 교통이 편리하며 인근에 奉化광업소가 있다.

전설에 의하면 동굴에서 용이 나와서 동굴 건너편에 송아지를 잡아먹었다는 것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10) 굴굴굴

慶北 聞慶郡 山北面 石鳳里 山 101 번지에 소재하고 있고, 김중호氏 私有地에 있다. 石灰洞窟로서 높이 3 m, 폭이 5 m, 전장이 250 m에 달하는 동굴로서 여러 갈래의 支窟로 형성되어진 동굴이다. 본굴의 길이는 118 m이고, 1번 支窟의 경우 약 145 m, 2번 支窟의 경우 약 40 m 정도이며 이곳에 약 70 m에 달하는 支窟이 또다시 계속하는 굴로서 동굴微地形의 발달이 미약하고 地下水가 흐르고 있다. 洞窟生物은 박쥐가 서식하고 있으며, 鍾乳石이 있고 굴내부에 거북형 바위가 있다.

이 동굴은 지산면과 산북면 사이의 도로상에 5 km 떨어진 배나무산의 해발 630 m에 자리잡고 있는데 현재 방치되고 있다.

옛날 高氏인 고상민(풍기군수)가 임진왜란때 피난했다 전해지며, 그옛날은 천지개벽 당시에 동쪽 1 km지점에 배를 묶어 놓았던 쇠말뚝이 있다 하여 배나무산이라고 한다.

구조나 형태의 특이성은 있으나 동굴의 조건을 구비하지는 못했다.

(11) 龍泉窟

蔚珍郡 平海邑 悟谷里 30번지에 위치한 石灰洞窟로서 높이가 3 m, 폭이 9 m이고, 전장은 탐사된 연장만으로는 450 m인데 실제로는 이보다 더 긴 동굴이다.

入口에서 100 m정도 들어가면 점점 넓어져서 점차로 줄어드는 水平洞窟로 平海面 평해국민학교에서 700 m쯤 떨어진 個人 私有地에 위치한다.

동굴의 微地形은 전형적인 石灰洞窟에서 볼 수 있는 鍾乳石, 石筍, 石柱 등이 있으며 地下水가 흐르고 洞窟生物 역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굴의 내부 및 외부를 전혀 훼손되지 않은 원형상태로 보존되어 있으며 전혀 오염되지 않은 상태이다.

굴입구에서 70 m는 鍾乳石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나 450 m 내부에는 흰색 鍾乳石이 훼손,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있고, 生成年代는 확실히 알수 없으나 濕度 및 溫度가 높고 굴 내부에 동물뼈가 있는 것으로 보아 동굴에 生物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며 456 m지점(폭 m)에 폭포가 있다고 하며, 傳說이나 由來는 알 수 없지만 老人들의 口傳에 의하면 出入口에 샘물이 솟아나오므로 龍泉窟이라 하였다 한다.

(12) 회곡동굴

奉化郡 才山面 東面里 39번지에 소재한 동굴로서 石灰洞窟이다. 높이가 3.2 m, 폭이 5.4 m, 전장이 4 km인 비교적 길이가 긴 동굴로서 入口에서 부터 점차로 커졌다가 점차 줄어서 3분의 2 지점에 이르러서 또 다시 7 m로 커졌다가 다시 줄어 들어 끝이 낮 모양으로 휘어진 동굴이다.

石灰洞窟의 전형적 특징은 별로 보이지 않고 다만 地下水와 박쥐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東面2리에서 약 5 km떨어진 회곡산의 해발 800 m 지점에 위치하며 자연상태로 보존되어 있으나 내부의 상태가 불결하여 경쾌한 동굴이 되지를 못한다.

(13) 계우세굴

北濟州郡 舊左邑 東金寧里에 소재한 熔岩洞窟이다. 높이 2.7 m이고, 폭이 6.5 m이며 전장이 90 m로 입구로부터 점차적으로 좁아지는 水平洞窟로서 西金寧里에서 月汀에 이르는 도로변에서 50 m 떨어진 姜東鎬씨의 私有地에 위치하고 있다.

洞窟微地形은 石筍이 있고 또한 地下水가 흐르고 있다.

마을권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入口 및 내부가 인위적인 훼손이 심하다.

(14) 어택이벌굴

北濟州郡 朝天面 善屹里에 소재한 용암동굴로 높이 1.5 m이고 폭이 4.5 m이며, 전장 200 m의 마치 새발의 모양으로 한 4갈래로 갈라진 굴로 입구 쪽에는 커다란 石柱가 있다.

朝天面 善屹里에서 1.5 km 떨어진 國有地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굴 자원으로는 다른 熔岩洞窟에서 별로 발견되지 않는 石筍, 石柱가 있으며 洞窟生物로는 박쥐가 수백마리 서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熔岩이 흐른 흔적으로 추정되어 내부벽이 기괴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내부는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으나 입구는 인위적으로 일부 매립한 흔적이 있음을 볼 수 있고 4.3사건(1948. 4.3) 당시 대피소로 이용하였으며 주민 수십명이 피살당한 사례가 있는 비극적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동굴로 전문적인 정밀조사를 하여 필요로 한다.

(15) 괴내기굴

北濟州郡 舊左邑 平垈里에 위치한 熔岩洞窟로 L자 형태의 垂直洞窟이다. 높이 2.9 m이고 폭은 3 m이며 전장은 200 m이다.

國有地 상에 있으며 石筍이 발달하고 동굴생물로는 박쥐가 서식하고 있다. 舊左面 松堂里로 부터는 4 km 떨어져 있으며, 다른 용암동굴처럼 단순하다.

내부는 원형대로 보존되고 있으나 입구 주변 自然石은 심하게 파손되었으며 주변은 목초지로서 목초가 자생하고 있는 동굴내에는 다수

의 박쥐가 서식하고 있다는 증거가 곳곳에 있는데 이는 박쥐 동이 산적해 있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다.

(16) 德泉窟

北濟州郡 舊左面 德泉里에 소재하고 있으며 용암동굴로 국유지에 자리하고 있다.

높이 3.5 m이고 폭이 8.3 m이며 전장 232 m로서 松堂里와 下德泉里나 있고 동굴생물로는 박쥐가 서식하고 있고, 주변에 작은 동물들이 산재하고 있으며 주변은 목초지로서 목초가 자생하고 있고 내부에는 원형대로 보존되고 있다. 입구는 자연 落石이 심하고 동굴 자체는 水平洞窟로 별다른 특징은 없으나 전설에 의하면 검은개를 넣으면 하얀개로, 하얀개를 넣으면 검은개로 변하여 舊左邑 소재 금녕으로 나왔다고 한다. 萬文窟 동굴시스템의 윗부분에 해당되는 동굴이다.

(17) 한들 구녕굴 (한들굴)

北濟州郡 翰林邑 金陵里에 위치한 熔岩洞窟로 金道準씨의 私有地에 위치하고 있다.

높이는 5.2 m이고 폭은 13 m이며 전장 1400 m의 동굴로 동굴내부의 3분의 2 지점에서 갈라지는 쌍굴로 두굴 사이의 폭은 약 50 m의 水平洞窟이다. 翰林邑 金陵里에서 1.3 km 떨어져 있고 주변에는 소나무 모래밭으로 되어 있고 입구가 넓으며 동굴내부에는 모래가 깔려 있다.

동굴은 타 熔岩洞窟과는 좀 다르게 地下水가 흐르고 있으며 石筍의 발달과 박쥐가 서식하고 있다.

동굴내부나 외부는 많이 파손되어 있는 동굴이다.

(18) 金陵발굴

北濟州郡 翰林邑 金陵리에 위치한 용암동굴로 李淳澤씨 소유로 높이가 4.5 m이며 폭이 6.7 m, 전장이 500 m인 수평동굴 입구는 2개로서 주변은 소나무밭 및 농경지로 되어 있으며 翰林邑 金陵리로부터 약 1.5 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洞窟 微地形으로는 石筍이 발달하고 있고 洞窟生物은 박쥐가 주로 서식하고 있다. 동굴의 보존상태는 내부 및 외부가 自然石 採取로 심히 파손된 동굴이다.

(19) 조롱굴

北濟州郡 翰林邑 金陵리에 위치한 용암동굴로 國有地에 위치하고 있다.

높이 2.5 m이고 폭이 4.3 m이며 전장 250 m의 ㄱ자형의 수직동굴이다. 주변은 밭으로 되어 있고 입구의 직경은 0.5 m로 매우 협소하고 翰林邑 金陵리에서 0.5 km 떨어져 있다.

다른 熔岩洞窟과 마찬가지로 微地形의 발달되지 않은 단순한 형태로서 동굴내부에 石筍이 발달하고 있다.

洞窟生物로는 박쥐가 서식하고 있다.

보존상태는 내부 및 외부의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타 용암동굴은 거의가 단순한 수평동굴인데 비해서 7자형의 垂直洞窟이라 구조나 형태상의 특이성 때문에 보존가치가 있는 동굴이다.

전해오는 전설에 의하면 옛날 板浦의 한 선비가 이 굴 옆으로 서당에 다니는데 하루는 굴에서 여우가 나와서 조롱했다 하여 조롱굴이라 불리웠다 한다.

(20) 계변굴

江原道 旌善郡 南面 柳坪里에 위치한 石灰洞窟로서 높이가 10 m, 폭이 20 m, 전장이 100 m이다.

國有地에 위치하고 旌善과 南面간의 도로에서 약 3 km정도 떨어진 유평리 인근의 해발 700 m 지점에 위치하며 방치되어 있으나 접근이 어려운 관계로 원형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동굴은 20 m 정도의 넓은 입구를 가지며 60 m 지점에서 약간 좁아졌다가 다시 넓어진다.

입구가 상중턱에 위치하고 통로가 절벽으로 되어 있어 통행이 거의 없고 박쥐가 서식하고 있다.

6.25 당시에는 인근 주민의 피난처로 활용하였다고 전해지는 동굴이다.

(21) 北窟

江原道 旌善郡 北坪面 南坪3리 소재의 石灰洞窟로서 높이 10 m,

폭이 8 m, 전장이 150 m인데 國有地에 위치하고 남평리에서 약 500 m 떨어진 해발 450 m 지점에 위치한다.

입구에 들어서면 커다란 廣場이 나타나고 점차 좁아진다. 地下水가 흐르고 있고 박쥐가 서식하며 방치되어 있으나 절벽하부에 위치하고 입구가 강과 연결되어 통행이 안되며 입구 주변에 여러개의 굴이 있다.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지점이라 거의 원형 보존되어 있으나 작은 동굴이다.

(22) 가랭이굴

江原道 旌善郡 臨溪面 稷院里 소재의 石灰洞窟로서 높이가 4 m, 폭이 3 m, 전장이 1,000 m인데 國有地에 위치하고 피원마을에서 1.5 km 떨어진 해발 700 m 지점의 산야 평지부에 위치한다. 동굴 微地形은 石筍이 있고 地下水가 흐른다. 원형은 잘 보존되어 있으며 직원리 거주 박용훈氏에 의해 내부 탐사를 실시되었는데 입구에서부터 길게 이어져 있고 2~3 갈래로 갈라지는 것으로 추측되며 소규모의 石筍이 다수 있음이 발견되었다.

굴 자체의 구조와 형태등이 특이한 동굴이다.

(23) 石窟

江原道 旌善郡 臨溪面 骨只리에 소재한 石灰洞窟로 높이 7 m, 폭이 4 m이고, 전장이 100 m인데 이광영氏의 私有地상에 위치하며

개인관리로 입구가 봉쇄되어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입구에서 4 m 넓이의 廣場과 이어 조금 더 들어가면 또 廣場이 나타나는데 이 廣場이 지나가면 길게 이어진다. 骨只마을에서 2 km 떨어진 산중턱에 있고 洞窟微地形은 鍾乳石이 있고 地下水가 흐른다.

특히 동굴내부의 鍾乳石 경관이 매우 좋으며 입구는 현재 관리자 李和春씨에 의해 봉쇄되어 있고 개발하기 위해서 내부에 층계 및 사다리 시설을 하였다.

구조와 형태가 특이한 동굴이다.

(24) 범바위굴

溟州郡 玉溪面 山溪里에 있는 石灰窟로서 높이 1.5 m, 폭 4 m, 전장 150 m인데 國有地에 있으며 石灰洞窟입구쪽의 도로에서 약 8 km 떨어진 범바위산 중턱에 위치한다.

洞窟微地形은 鍾乳石, 石筍, 石柱등이 있고 地下水가 흐르며 洞窟生物로는 거미가 서식하고 있다.

입구는 폭 4 m로서 조금 들어가면 거대한 광장이 나오고 이어서 점점 좁아져서 말단 부분에 이르게 된다.

동굴내부는 원형 보존되어 있으나 입구주변이 방치되어 많이 파손되었고, 전해지는 이야기는 시대미상, 범이 서식하여 살았다고 하여 범바위굴이라 부르고 있으며 神仙들이 바둑을 두었다는 바둑판이 돌에 새겨져 있으며 藥水가 흐르고 있어 많은 病者들이 이곳에서 치유하였다고 한다.

(25) 仙窟

三陟郡 史直洞 鳥飛里에 위치한 石灰岩洞窟로서 높이 4 m, 폭이 4.5 m, 전장 150 m인데 김병용氏 私有地에 있다.

조비 2리 마을에서 1.5 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비교적 단순한 동굴로서 地下水가 흐르고 박쥐가 서식하고 있다.

동굴내부는 原形保存이 잘 되어 있으나 외부는 많이 파손되어 있다. 주변의 경관이 아름다우며 동굴 내부에서 찬바람과 훈훈한 바람이 교대로 나오고 있다.

입구에서부터 말단 부분까지 4~3 m 정도의 높이와 폭을 유지하고 있다.

(26) 三和寺虎窟

江原道 東海市 三和洞 산 1267 번지에 소재한 높이 1.5 m, 폭 1.5 m, 전장 200 m의 石灰岩洞窟로 國有地에 있다.

北坪邑과 武陵계곡간 도로상에 위치한 三和寺에서 약 2 km 떨어진 산중턱에 자리잡고 있다.

雙龍洋灰東海工場 採石場 주변에 위치하며 많이 파손되었으며 입구에서 마치 동물의 심장 형태를 갖추어 끝장에 이르게 된다.

日帝時代 鐵鑛이 發掘된 광산굴이므로 사실상 동굴이라고는 볼 수 없다.

(27) 下東 굴굴굴

江原道 寧越郡 下東面 예밀 2 리에 소재한 石灰洞窟로 엄희용氏 私有地에 있다.

하동면 예밀리에서 북동쪽으로 1 km 떨어진 응봉산(1013 m) 기슭 해발 480 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구에서부터 2 m 정도의 광장 옆 부분에 제 1 지굴이 있고 더 들어가면 20 m 정도의 지굴이 또 나타나며 다시 말단 부분에 이르기까지 또 하나의 지굴이 나타난다.

동굴미지형으로는 鍾乳石과 石筍이 있으나 경관을 그리 좋지 않다. 자연상태 그대로 방치되어 있기는 하나 원형대로 보존이 잘 되어 있다.

6.25 전란시에 마을 주민들의 피난처로 이용되었다.

동굴의 폭은 4 m, 높이는 3 m, 전장은 155 m에 해당된다.

(28) 稚岳洞窟

江原道 原城郡 관부면 금대리 산 50-9 번지에 소재하는 石灰岩洞窟로서 박진원氏 私有地에 자리하고 있다.

동굴 微地形의 발달이 매우 양호한 상태로서 鍾乳石, 石筍, 石柱 등의 경관이 풍부하고 地下水가 흐르며 洞窟生物 역시 타동굴에 비해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稚岳山 國立公園에 위치한 중앙선전철 金垆 제 1 호터널(일명 도아리굴) 안에 있는 동굴로서 日帝時代 중앙선 철도 개설 공사를 하던 일본인들이 발견하였다. 부근이 石灰岩으로 형성되어 있어 많은

支窟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높이 20 m, 폭 1.5 m, 전장 1,800 m로서 입구에서 부터 20 m 지점에 10 평 정도의 廣場이 있고, 또 30 m 지점에 50 평의 광장이 있고, 우측으로 10 m 지점에 역시 같은 크기의 광장이 있으며, 다시 2 m 지점에 5 평정도 광장과 다시 50 m 지점에 30 평, 그리고 20 m 더 들어간 말단 부분에 50 평의 광장이 있다.

동굴내부에는 귀가 4 개인 박쥐와 두꺼비, 나비(파란색, 왕파리 크기) 등이 서식하고 있으며 200 m 이내 출입이 용이한 곳은 石筍, 鍾乳石 등을 전부 功取해 가고 흔적만 남아 있으며 출입이 곤란한 깊숙한 곳에는 石筍, 鍾乳石, 石筍 등이 있으며 특히 鍾乳石 커튼(CURTAIN), 珊瑚가 있으며 현재 이굴은 방치되고 있는 상태이다.

(29) 沙谷窟

江原道 三陟郡 遠德面 沙谷里에 소재한 石灰洞窟로서 높이 1.5 m, 폭 2 m, 전장 150 m인데 이재천氏 私有地에 위치하고 있다.

遠德面 유천 1 리의 다리 부근에서 약 15 km 떨어진 河川을 낀 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구에서 말단까지 마치 방망이 형태를 가진 외굴로서 말단 부분이 3 m에 달한다.

동굴 微地形으로는 石柱가 있으며 地下水가 흐르고 있다. 동굴의 내부는 많이 파손되어 있으며 별다른 특징을 가지지 못했다.

좀 더 전문적 연구가 정밀조사가 요구된다. 굴입구에서 찬바람이 나와서 風門窟이라고도 부른다.

(30) 次口里 蝙蝠窟

三陟郡 道溪邑 次口里 산 91 번지에 위치한 石灰岩洞窟로서 높이 3.5 m, 폭 2.5, 전장 10 m인데 이덕주氏 私有地에 있으며 次口里에서 약 500 m 정도 떨어져 있다.

동굴 微地形은 石筍이 있고 地下水가 흐르며 洞窟生物인 박쥐가 서식한다.

洞窟內部가 잘 보존되어 있으며 입구에서 2 m 들어가면, 높이 10 m, 폭 6 m의 상굴이 있어 이층굴이라고 한다.

100 m 정도 들어가면 백사장이 나타나고 地下水가 흐르고 있다.

(31) 蓮華上窟

三陟郡 道溪邑 磨瑳里 산 21 번지에 위치한 石灰岩洞窟로서 높이 20 m, 폭 1.3 m, 전장 350 m인데 國有地에 위치한다.

磨瑳里에서 약 5 km 떨어진 산의 하단부에 위치하며 입구에서 부터 길게 이어진 단순한 동굴이다. 洞窟資源으로는 石筍이 있으며 地下水가 흐르고 洞窟生物로 박쥐가 서식한다.

동굴내부가 많이 파손되어 있으며, 1810년 丙子胡亂時 30 가구가 피난했다고 한다.

(32) 閻三 垂直窟

三陟郡 蘆谷面 閻三里 임야지 167에 소재한 石灰洞窟로서 國有地에 위치하며 폭 3 m, 전장 250 m 정도의 굴이다.

地下水가 흐르고 있으며 石筍, 石柱와 같은 2차 生成物은 빈약하고 박쥐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원형 그대로 잘 보존되고 있다.

노곡분교 여삼분교에서 약 500 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며 입구에서 3 m 정도 넓이가 있고 이어 또 다른 입구에 2.5 m 넓이를 이룬다.

(33) 폭나무밑 굴

北濟州郡 舊左邑 東金寧里에 소재하며 任靜淑씨의 所有地에 자리 잡고 있다.

중심부가 넓은 사람의 위장모양 비슷한 형태의 熔岩洞窟로 石筍이 있다.

舊左面 東金寧里에서 남쪽으로 0.55 km 떨어져 있으며 입구상부에 폭나무(팽나무)가 있고 과거에 Totemism 사상으로 연유되는 제단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곳에서 제를 지냈음을 추측할 수 있고 동굴지명 역시 폭나무가 있다해서 연유된 것으로 보여진다. 주변은 농경지이며 주변에 크고 작은 동굴이 존재하고 있으며 내부에는 낙서등에 의해서 인위적인 훼손 부분이 많다.

(34) 黃土器窟

慶北 聞慶郡 虎溪面 오암리 산 5 번지에 소재한 石灰岩洞窟로서 안윤화氏 所有의 땅에 자리하고 있다.

조정산 중턱의 해발 510 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장 가까운 마을의 거리를 2 km가 된다.

굴의 형태는 입구에서 약 30 m 들어가면 커다란 광장이 나오고 여기서 더 들어가면 두 갈래로 갈리는 굴이다.

鍾乳石이 있으며 박쥐가 서식하고 있다. 또한 굴 안쪽에 비단형의 바위가 있는데 높이가 5 m, 둘레가 3 m나 된다.

보존상태는 관리 방치되어 있고 전해오는 전설에 의하면 옛날 저녁에 갑자기 흰 구름이 끼더니 용이 붉은 빛을 뿜으면서 하늘을 날아갔다고 전해지며, 또한 6.25사변 당시에 주민들의 피난 은신처가 되기도 하였다고 한다.

(35) 행매굴

旌善郡 旌善邑 용탄 3 리에 소재한 石灰洞窟로서 國有地에 위치하고 있으며 행매동에서 약 1.2 km 지점인 해발 900 m 지점에 자리잡고 있다.

地下水가 흐르고 있고 원형 보존은 잘 되어 있으나 방치된 상태이다.

입구에서 폭 6 m 정도의 대단히 넓은 廣場을 지나면 30 m 지점에 약 높이 10 m에 달하는 지하절벽이 있고 굴절면의 암석이 단단하지 못하여 위험한 곳이 많다.

6.25 당시에 주민들의 피난처로 사용되었고 임진왜란시의 의병의 은신처가 되기도 하였다.

동굴이기는 하나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66) 작은 초깃굴

北濟州郡 翰林邑 狹才牛里에 위치한 용암동굴로서 國有地에 위치하고 있다. 높이는 3.5 m이고 폭 4 m로 전장이 1.3 km이며 동굴의 형태는 갈라진 쌍굴로 수평동굴로 미지형의 발달은 미약하고 석순이 있는 정도이다.

翰林邑 狹才里에서 1.5 km에 위치하고 있고 가까운 곳에 쌍용굴이 있다. 주변은 소나무밭과 농경지로 되어 있고 內部바닥은 모래로 덮여 있고 입구에서 100 m 이상되는 지점에 지표로 통하는 직경 2.5 m 정도의 천장구멍이 있으며 보존상태는 내부는 대체로 원형보존이 잘 되어 있고 入口쪽에는 外部와 더불어 양송이(초기) 재배로 인해 약간 훼손되었다.

과거에 동굴내부에 초기(버섯)를 많이 재배하였다고 하나 현재는 재배하지 않고 있으며 타동굴에 비해서 그 구조의 다양함과 형태의 특이성으로 인한 전문적 정밀학술조사에 의한 가치보존이 사려된다.

(67) 박쥐굴

鎭山郡 마전리에서 용지리 쪽으로 올라가다보면 산중턱에 큰 굴로 옛날 이굴에는 수백마리의 박쥐가 살고 있어서 낮에는 굴속에 수백마리가 모여들었다가 밤이면 한마리도 없이 날아가곤 해서 박쥐굴이라 한다. 그런데 여기에 박쥐가 모여 들면서 이굴이 바라보이는 목골부락은 마을 형편이 점차 나빠진다고 한다.

원래 박쥐가 들끓는 마을은 곡식도 잘 안된다고 하는데 목골로부터 박쥐굴이 보이지 않게 되자 마을은 점점 흥해갔고 농사일도 잘 돼갔다고 한다. 지금도 목골 사람들은 박쥐굴을 쳐다 보지도 않는다고 한다.

(88) 水谷洞窟

錦山郡 錦山邑 남쪽을 가리고 있는 이 고장의 名山 진악산 선바위재(立石峯)의 아래쪽 물골에 있는 자연동굴로 鎮岳山에 오르는 탐승객은 이 수곡동굴을 구경하지 않으면 산에 오른 보람이 없다하여 누구나 찾는 동굴이다.

水谷峯의 층암절벽을 안고 돌아가면 높이 70 cm, 넓이 1.2 m쯤 되는 동굴이 보인다. 입구는 좁으나 그 안에 들어서면 2칸방쯤 되는 공간이 있어 天井은 2 m쯤 높고 좌우석벽에 물이 스며있고 천정에는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며 칠흙같이 어두어 촛불이나 전등을 들고 들어가야 한다. 옛부터 도를 닦는 이들의 修道場으로 유명하며 山神기도자들의 기도처로서 神域처럼 여기는 石室이다. 이 石室에서 더 들어가면 암반에 천연의 큰 샘이 있어 그 깊이를 알 수 없으며 천정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은 샘물에 울려 퍼지고 어름같이 찬물과 찬바람은 찾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다.

이 동굴을 보고 여러가지 전설이 전해지고 있으니 龍馬가 나오는 굴 진악산 남쪽의 靈泉 동굴과 이어진 굴, 原始人이 살던 동굴 등으로 말하고 있으나 석회암으로서 이루어진 자연동굴이다.

(89) 將帥窟

錦山郡 谷南里 매방골 뒷산 곡남 농성 성터 및 절벽에 위치한 동굴로 수십명이 들어가 있을 만한 곳인데 옛날에 굴안에서 將帥가 앉았다는 엉덩이 자욱이 현재도 남아있다.

옛날 장수의 갑옷을 왜놈들이 굴에만 봉했다고 전하는데 약 50년 전에 谷南里에 살던 사람이 갑옷을 꺼낸다고 배 위를 파자 갑자기 천등과 번개가 쳐서 그만 도망쳐 왔다고 한다.

지금도 굴 어딘가에 장수의 寶劍과 갑옷이 있으리라고 마을 주민들은 믿고 있다.

이곳에서 남쪽으로 진산면 삼가리 白馬山이 보인다.

(40) 指南鐵 동굴

錦山郡 石幕里에서 약 800 m 떨어진 가막골에 있는 굴로 전설에 의하면 唐나라때 발굴되었다고 한다.

옛날에 호미 쟁이를 집에 두고 또 밭에도 놓고 다녔는데 하루는 연장이 하나도 없이 전부 없어졌다.

서로가 연장이 없어서 몇번을 찾아보았으나 알 수가 없었다. 하루는 한 농부가 호미 쟁이를 집에 두고 밤을 새우며 살펴보니 갑자기 쟁이가 움직여 쫓아가 보니 지남철굴에 쇠로 된 연장이 수없이 매달려 있었다. 한 농부는 이상히 여겨 다음날 주민들과 같이 가보니 연장은 그대로 있었다.

하나 하나 떼어놓고 나무를 산같이 해놓고 굴에다 24시간을 불을 놓은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

현재는 발굴을 해서 옛모습은 없으나 指南鐵은 지금도 볼수가 있다.

(41) 千壽洞窟

錦山郡 西臺山の 동쪽기슭에 위치한 굴로서 크기가 웅장하여 1,000 여명이 기거할 수 있다 하여 千壽洞窟이라 했다. 秋富面 서대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6.25 당시 후퇴하지 못하고 남은 괴뢰군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버티고 있었으나 國軍에 의하여 완전히 소탕되었으며, 지금도 그 굴속에서는 사람의 뼈와 소뼈등이 종종 눈에 띄고 있다고 한다.

(42) 鶴田窟

江原道 寧越郡 北面 磨蹉9리에 있는 높이 10 m, 폭 20 m, 총연장 120 m의 석회동굴로 종유석, 석주가 약간 있으며 옛날 굴안에서 방아를 찼었다 하여 목조방아들의 형태가 남아 있음. 굴안에 3개소의 폭포와 3개소의 광장이 있고 박쥐, 나비, 지네, 굴새우 등의 生物이 서식하고 있다.

(43) 진피리굴

旌善郡 旌善邑 鳳陽6리에 있는 높이 4 m, 폭 3.5 m, 길이 100 m의 석회동굴로 약간의 石柱와 종유석이 있다.

(44) 나팔굴

旌善郡 旌善邑 橋岩里에 있는 높이 3 m, 폭 3 m, 길이 200 m의 석회동굴로 국유이며 임진왜란시 旌善좌수가 피난하였다가 難이 끝난후 나팔을 불며 나왔다 하여 나팔굴이라 한다.

내부에는 좌수의 침상이었던 돌무더기가 웅고되어 있다.

(45) 小龍窟

濟原郡 文義面 九龍里에 있는 높이 10 m, 폭 10 m, 길이 100 m의 석회동굴로 국유이며 옛날 용이 9마리가 나왔다하여 마을 이름을 구룡리라 함. 입구에 20 m정도에 1광장이 나타나고 다시 좁아졌다가 50 m지점에 제 2의 광장이 나타난다.

(46) 公耳窟(암소바위굴)

中原郡 鬯味面 公耳里에 있는 높이 4.3 m, 폭 20.7 m, 길이 345 m의 석회동굴로 사유이며 6.25 피난시 公耳洞 주민의 대피처로 사용되어 일부의 석순이 파괴되었다. 이웃에 月出山 국립공원이 있고 굴밀에는 자연석인 암소바위와 100여 그루의 느티나무 숲이 있고 300여년된 소나무가 한그루 있어 옛날에 神仙들이 놀다갔다 한다. 옛날 마을의 식사를 훔쳐먹고 사는 거심이가 거주하던 굴로 옛날에는 단양과 서로 굴속에서 통했다 함. 하나의 커다란 광장으로 됨.

(47) 鳴馬窟

江原道 寧越郡 水周面 武陵里에 있는 높이 5 m, 길이 1,000 m 폭 5 m의 석회동굴로 사유이며 옛날 이굴에서 말이 나와서 울었다 하여 鳴馬窟이라 한다. 이 말이 寧越郡 酒泉面 桃川里 말무덤에서 죽었고 이곳에다 도천리 金氏네가 묘지를 쓰자 후에 장군이 출생했다 한다.

(48) 바람굴

平昌郡 美灘面 倉里에 있으며 길이 150 m, 폭 4 m, 높이 3 m의 석회동굴로 균유이고 바람이 나오기에 바람굴이라 한다. 석순이 많이 있고 지하에는 물이 내려간다. 1자형의 수평굴이다.

(49) 次口里법굴

三陟郡 道溪邑 次口里 산 91번지에 있는 높이 3.5 m, 폭 2.5 m, 전장 100 m의 석회동굴로 사유이며 동굴내부가 잘 보존되어 있고 박쥐가 있다. 2 m까지 들어가면 높이 10 m, 폭 6 m의 上窟이 있어 이곳 주민들이 이층굴이라 하며 100 m까지 들어가면 지하수가 흐른다.

(50) 禁夢庵窟

寧越郡 寧越邑 永興里에 있는 높이 1.5 m, 폭 1.5 m, 길이 435의 석회동굴로 국유이다. 장마시 이 굴에서 물이 터져 나오면 영월 읍내가 물에 침수된다는 전설이 있는데 내부 종유석은 파손되어 있다.

寧越, 莊陵, 보덕사 금몽암자의 100 m 위쪽에 위치하고 있다. 굴은 ㄷ자형태를 이루고 있다.

(51) 갯생이굴

濟州道 西歸浦市 西洪洞. 1406 번지에 있는 높이 10 m, 폭 2.7 m, 길이 46 m의 용암동굴로 사유이며 돌을 굴속으로 던지면 西歸浦市 앞바닥에 있는 虎島에서 나온다 함. 주변은 방목지로 무성하다.

(52) 중산세굴굴

丹陽郡 魚上川面 運谷里 산 86 번지에 있는 높이 15 m, 폭 20 m, 길이 55 m의 석회동굴로 金元培씨 사유이며 박쥐가 서식하며 정월 대보름날이면 전 부락민이 이 동굴에 모여서 망우리 불꽃놀이를 하였다 하여 일명 망우리굴이라고도 한다. 연곡분교 위쪽 50 m 지점에 있는 수평굴이다.

(53) 말 굴

丹陽郡 永春面 上里 산16번지에 있는 높이 2.5 m, 폭 2 m, 전장 50 m의 석회동굴로 사유이며, 굴 입구에 물이 흐르며 이 굴 속에서 6.25 사변이 주민이 피난하였다가 폭격으로 30여명이 희생된 굴이다. 밑으로 남한강이 흐르고 있는 -자형의 수평굴이다.

(54) 泉洞베를굴

丹陽郡 大崗面 泉洞里 산30번지에 있는 높이 1 m, 폭 1.5 m, 길이 50 m의 석회동굴로 국유이며 인근에 천동굴이 있으며 내부경관은 2차생성물이 많이 파괴되어 있는 수평의 -자 굴이다. 박쥐가 서식하고 있다.

(55) 彌勒里 수직굴

丹陽郡 大崗面 水村里 산29번지에 있는 높이 60 m, 폭 25 m, 길이 85 m의 석회동굴로 국유이며 6.25 당시 주민들이 이굴에 피난하였다 하며 굴안에는 미륵을 닮은 석주가 3개 있어 미륵이 굴이라 한다. -자형 수평동굴이다.

(56) 下槐洞窟

丹陽郡 梅浦邑 於儀谷里 산69에 있는 높이 8.5 m, 길이 70 m, 폭 6.5 m의 석회동굴로 사유이며 굴안에는 지하수가 흐르고 있어

여름에는 인근 주민들의 하기 휴식처로 사용되고 있다. 박쥐가 서식하는 -자형 수평굴이다.

㉮ 水 穴

堤原郡 淸風面 北津里 해발 100 m에 있는 높이 2 m, 폭 2.5 m 길이 60 m의 석회동굴로 옛날부터 굴속에서 물이 흘러 나온다 하여 수혈이라 함. 충주댐이 완공된 후 수몰되었다.

㉯ 龍 窟

井邑郡 山外面 貞良里 상용산 197번지에 있는 석회동굴로 사유이며 높이 3 m, 폭 0.8 m, 길이 60 m이며 1972년 새마을 지도자 정성호씨가 발견, 全北大 및 서울대의 학자들이 1973년 1차 조사하고 1974년 전등시설을 했으나 현재는 대부분 파괴되어 있다.

굴안에 말발굽, 짐승유골, 토기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임진왜란이 義兵의 은거지로 전해진다.

굴입구에서 불을 때면 약 4 km 떨어진 상두산정에서 연기가 난다고 전해지며 박쥐, 다람쥐가 서식하고 석순이 조금 있다.

㉺ 龍 泉 窟

錦山郡 珍山面 향리 87-4번지에 있는 높이 4 m, 폭 1 m, 길이 65 m의 석회동굴로 사유이며 내부경관은 좋아서 종유석, 석순등

이 잘 나타나며 지하수가 흐르고 있다.

1910년경 석주근씨 부친이 발견했다 하며 6.25 동란시 피난처로 사용되었다 함. 굴 입구에서 50 m 들어가면 1층과 2층으로 나누어지며 입구 4 m 부근에 종유석순이 뱀형태로 되어 있다.

60) 중산굴앞 굴

丹陽郡 魚上川面 蓮谷里 산 14번지에 있는 높이 1.5 m, 폭 3.2 m, 길이 50 m의 석회동굴로 사유이며 -자형 수평굴로 내부경관은 거의 없다.

61) 길옆굴

丹陽郡 魚上川面 蓮谷里 산 20번지에 있는 높이 3.2 m, 폭 10 m, 길이 80 m의 석회동굴로 사유이며 굴안에 석순, 종유석 같은 2차 생성물은 없으며 전에 사람의 뼈가 굴속에서 발견되었다 함.

연곡분교 위쪽 1,000 m 지점에 산록에 있다.

62) 鳥飛窟

江原道 三陟市 鳥飛洞에 있는 높이 0.7 m, 폭 0.7 m, 길이 70 m의 석회동굴로 사유이며 굴 내부는 원형대로 잘 보관되어 있다.

63) 전의굴

平昌郡 大和面 介水里에 있는 높이 2.5 m, 폭 2 m, 길이 51 m의 석회동굴로 국유이며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나 2차생성물은 보잘것 없다. 巨文山(1175 ~) 아래 해발 750 m 지점에 있다.

64) 얼음굴

旌善郡 旌善邑 檜洞里에 있는 높이 7.5 m, 폭 1.5 m 길이 60 m의 석회동굴로 국유이며 5월 중순까지 얼음이 있으며 겨울에는溜風이 나온다. 경사굴로 一자형이며 험난한 협곡형태를 유지한다.

65) 龍水谷窟

旌善郡 旌善邑 龍灘里에 있는 높이 4 m, 폭 2 m, 길이 60 m의 석회동굴로 국유이며 지하수가 흐르며 옛날에 龍馬가 나왔다 하여 용수곡굴이라 한다.

한해가 있을때 개를 죽여서 받치면 비가 온다는 전설이 있으며 주민들은 접근을 꺼리는 상태이다.

굴 입구는 절벽에 위치하고 있는데 하단에 6 m 높이의 폭포가 있다.

66) 절굴굴

旌善郡 東面 嵩岩里에 있는 높이 3 m, 폭 2 m, 길이 50 m의 석회동굴로 국유이며 내부경관은 없고 군데 군데 폭 1 m 정도의 작은 동굴연못이 있다. 각 화산 및 해발 900 m 지점에 있는 경사굴이다.

67) 불굴굴

平昌郡 大和面 大和里에 있는 높이 3.5 m, 폭 10 m, 길이 80 m의 석회동굴로 국유이며 내부경관은 거의 없고 한발시 주민들이 개머리를 가지고 제사지내던 곳이다.

옛날 인류가 거주한 흔적이 있다 하는데, 해발 650 m 지점 白古山 (1364 m)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68) 경검산굴

旌善郡 旌善邑 龍灘里에 있는 높이 2.5 m, 폭 5 m, 길이 80 m 의 석회동굴로 6.25사변시 피난동굴로 사용되었다 한다.

내부에 지하수가 흐르는 경사굴로 특이할만한 내부경관은 없다. 백탄교 건너편 해발 350 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69) 盤泉窟

旌善郡 壬溪面 반천리에 있는 높이 15 m, 폭 8 m, 길이 50 m 의 석회동굴로 굴안에는 박쥐가 서식하고 지하수가 흐르고 있다. 해발 500 m 의 어권동 마을 근처에 있다.

70) 石項 垂直窟

寧越郡 上東邑 石項里에 있는 높이 2.5 m, 폭 5 m, 길이 70 m 에 있는 석회동굴로 국유이며 굴안에는 지하수가 흐르며 내부경관은 화려하지 못하다. 석항천변 해발 400 m 지점에 있는 수직동굴이다.

71) 蓮上 세구굴

寧越郡 上東邑 蓮上里에 있는 높이 2 m, 폭 2 m, 길이 78 m 의 국유 석회동굴로 굴내부에 지하수가 흐르고 있으며 약간의 종유석이 있다. 석탕역에서 200 m 지점의 산록에 위치했다.

(72) 角洞窟

寧越郡 下東面 角洞窟에 있는 높이 1 m, 폭 1.5 m, 길이 50 m의 석회동굴로 사유이며 굴내부에는 경관이 전혀 없다. 경사 -자굴로 해발 400 m 지점에 위치한다.

(73) 박쥐굴

寧越郡 比面 磨澁里에 있는 높이 3 m, 폭 3 m, 길이 80 m의 석회동굴로 약간의 석순이 자라며 나비, 귀뚜라미가 서식하는 국유동물이다.

6.25 때 주민들이 대피했던 곳으로 해발 600 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월-정선간 국도에서 1,500 m 정도 떨어졌다.

(74) 중터거리굴

寧越郡 北面 磨澁里에 있는 높이 3 m, 폭 7 m, 길이 55 m의 석회동굴로 국유이며 약간의 석순이 굴내부에 있으나 원형이 많이 파괴되어 있으며 옛날 소금장수가 이굴을 통하여 정선을 왕래했다는 전설이 있다.

빈터거리 다리에서 북동쪽으로 약 2~300 m 지점의 해발 450 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박쥐가 서식하고 있다.

(75) 배거리굴

寧越郡 北面 덕상리에 있는 높이 2 m, 폭 2 m, 길이 55 m의 석회동굴로 현대시멘트 주식회사의 소유이며 약간의 석순이 파괴된 채로 남아 있다.

6.25 때 주민들이 피난처로 사용했던 굴로 일제시에는 이 굴속에서 삼베를 직조하였다 한다.

배거리산(852 ~) 아래 해발 440 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76) 괴골굴

寧越郡 西面 용井리에 있는 높이 5 m, 폭 7 m, 길이 75 m의 석회동굴로 국유이며 주민들의 출입이 잦아 원형보존이 안되고 부락민의 현재 놀이터로 사용되고 있음. 동굴지하수로 인근 전답에 관개용수로 이용하고 있음.

(77) 富谷숫굴

開慶郡 虎溪面 富谷里 산 4번지에 있는 높이 2 m, 폭 8.4 m, 길이 59.6 m의 석회동굴로 사유이며 굴 내부경관은 보잘것없고 박쥐만 서식한다.

여름에는 주민들의 더위를 피한 휴식처로 사용되며, 천장에서는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다.

(78) 돛저목나무굴

北濟州郡 舊左邑 坪垈里에 있는 높이 2 m, 폭 2.5 m, 길이 70 m의 용암동굴로 국유이며 굴 입구에 목나무덩굴이 무성하여 목나무굴이라고 한다. 경사굴로 내부경관은 거의 없다. 가까운 곳에 비자림지대가 있다.

(79) 여우굴

濟州道 西歸浦市 土坪洞에 있는 높이 12 m, 폭 2.3 m, 길이 80 m의 용암동굴로 박쥐가 서식하고 있다.

굴 내부 중간쯤에 작은 동굴호수가 있다. 5.16 횡단도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80) 머시벌굴

南濟州郡 城山邑 蘭山里에 있는 높이 20 m, 폭 13 m, 길이 50 m의 용암동굴로 사유이며 개를 굴속에 떨어뜨리면 新川里로 나온다는 전설이 있다.

수직굴로 내부에 박쥐가 서식하고 굴 주변은 방목지로 목초가 자라고 있다.

(8) 태나무굴 굴

이 石灰洞窟은 江原道 旌善郡 舍北邑 稷田里에 있다.

舍北은 三陟郡과 寧越郡이 서로 마주치는 곳인데, 새로 개통된 태백선 고산 철도의 사북역에서 내려 북으로 6 km 계곡을 따라 올라 가면 직전리인데, 이 마을 뒷산 너머에 있다.

이 동굴 형태를 보면 주위에는 숲이 우거져 있으나 입구는 비교적 넓다. 굴의 깊이는 직선으로는 220 m가 되는데, 직선으로 140 m 들어가서 다시 오른편으로 꺾어 80 m들어 갔다가 40 m되돌아 나오면 길이 왼편으로 뚫려 있는데, 굴 끝머리는 50 m 자일로는 다다르지 못하는 깊고 깊은 벼랑으로 막을 내린다.

굴속 溫度는 18°C (7월) 이 굴을 감싸고 있는 地層의 지질 연대는 4억년 전인 朝鮮界 대석회암층의 암석층이다. 벌레 낀 화석 석회암과 이질 석회암으로 된 이 지층은 검은 초록색과 검은색의 점판암(粘板岩)으로 되어 있다.

이굴 입구에서 약 70 m되는 곳에서 초식동물인 말의 아랫턱뼈 화석이 발견됐는데, 보존 상태가 매우 좋았고, 전체 턱길이는 36 cm, 앞니 6개, 송곳니 2개, 좌우 각각 6개의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 말의 역사가 포유동물 중 가장 잘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북아메리카의 제 3기 침전물에서 그 진화과정을 모두 발견됐다고 한다. 그런데 말의 옛 화석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되기는 처음이다.

또 입구 100 m 지점에서는 육식동물인 여우의 두개골 화석이 발견되었는데, 보존 상태도 좋거니와 더욱 놀란것은 아랫턱 부분에 청

동계의 장식 고리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다. 그것으로 보아 청동기시대 또는 초기 철기시대 (약 기원전 100 ~ 500년) 의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그 밖에 굴속에서 약 20개 조각의 토기편이 발견됐는데 갈색의 경질 무문토기이고, 구연부는 외반형이며, 기제는 편편한 것으로 보인다고 숙대 최무장 박사는 발표하고 있다.

이 동굴의 첫 탐사는 1975년 2월에 홍시환, 최무장, 한성인 교수팀과 최재명, 백순갑 팀의 학술조사와 탐험으로 실시되었다.